



평화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반갑고 복된
소식을 상기시켜보면,

요한복음 3 장 16-17 절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judge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should be saved through Him. (NASB) John 3:16-17

참으로 놀랍고 복된 소식 즉 복음(Good News)입니다.

매주일 오후 12 시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만남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9) 310-8230, e 메일: hae123lee@hotmail.com

2022 년도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Ephesians) 4 장 1-6 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구주! Jesus is my Lord and Savior!

평화 침례교인 및 글을 보는 이들이 매일 점검해야 할 것.

1. 오늘 주님과 만났는가?
2.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3.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삶에 실천이 있었는가?
4.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5.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가?
6.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가?
7.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내게 넘치고 있는가?
8.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9. 가정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었는가?
10. 옛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는가?

목민심서에서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 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입니다.

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 하고

돌아버릴 거래요.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

가끔 힘들면 한숨 한 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좌정하여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누구랑 함께 가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 웃긴 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되세요.